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영 성 체	파 견
<가톨릭 성가 102번> 어서 가 경배하세	<가톨릭 성가 32번> 언제나 주님과 함께	<가톨릭 성가 25번> 사랑의 하느님	<가톨릭 성가 103번> 오늘 아기 예수

제 1독서 | 집회서 3,2-6. 12-14

화답송 |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여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우)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헛순 같구나. ◎

○ (좌)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제 2독서 | 콜로새서 3,12-21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태오 2,13-15. 19-23



오늘의 복음 - 마태오 2,13-15. 19-23

13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 버리려고 한다."

14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15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19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20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21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22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래아 지방으로 떠나,

23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교리 교육: 악덕과 미덕 - 영적 투쟁

지난주부터 악덕과 미덕에 대한 교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투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영성생활은 평온하지 않고 밋밋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을 지키고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은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끊임없는 싸움을 요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례성사를 통해 받은 첫 성유인 '예비 신자 성유'가 아무런 향기도 없이 삶 자체가 투쟁임을 상징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대 레슬링 선수들은 경기 전에 근육을 단련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몸을 잡기 어렵게 하도록 옷을 입지 않은 채 몸에 올리브 기름을 발랐습니다. 예비 신자들에게 '예비 신자 성유'를 바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영적 투쟁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은 악과 싸워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삶은 시련과 유혹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경기장에 들어가 싸워야 합니다.

은수생활의 아버지로 공경을 받는 안토니오 성인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혹을 피하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성인들은 유혹에서 벗어난 이들이 아니라, 악의 유혹이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들, 따라서 그 정체를 폭로하고 거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혹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모두가 말입니다. 나쁜 생각이 들거나 다른 이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 모두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싸워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이례적인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니야,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고쳐야 할 것이 많으며, 또한 경계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가끔 우리는 고해성사 도중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신부님,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모두가 말입니다. 가끔 우리 내면을 살피고 양심성찰을 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어둠에 익숙해져 선과 악을 구별할 방법을 더 이상 알지 못하게 되면서 어둠에 잠겨 살아갈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니네베의 이사악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에 슬퍼하는 사람이 죽은 이를 살리는 이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 아버지의 무한한 자비 앞에 어떤 죄도 크지 않다는 신뢰를 마음속에 품고 우리 자신을 회심이 필요한 불쌍한 죄인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복음서의 시작 부분, 곧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한 사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에는 무언가 당황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정결 의식에 응하셨을까요? 그분께서는 하느님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죄에 대해 뉘우치셔야 할까요? 뉘우치셔야 할 죄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조차도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마태 3,14)라며 예수님을 만류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이 소개한 메시아, 군중들이 상상했던 메시아와는 매우 다른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노의 하느님을 보여주시지도 않으시며 심판을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반대로 죄인들과 함께 줄을 서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 모두와 동행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죄인이 아니시지만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신부님, 저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께 당신의 죄에 대해 말씀드리십시오. 그분께서는 당신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절대

로 우리를 혼자 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신부님, 저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해하시고 당신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죄를 품어 안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가 죄에 빠지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심지어 죄를 지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려고 우리 곁에 계신다는 이 확신을 잊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신부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용서하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이 열려 있기만을 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결코 용서하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용서를 구하는 역량을 잃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용서를 청하는 역량을 다시 회복합시다. 우리 각자는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각자 마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신 것을 오늘 예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께서 저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당신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 오나, 저에게서 눈을 돌리지 마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서 눈을 돌리지 마소서.”



“기도하지 않는 삶은
색깔이 없는 그림과 같고,
그림을 그리는 일은
하느님이 주신 은총을
되돌려 드리는 길입니다.”

- Fr. 김인중

공지 사항

1. 새해맞이 성시간(Holy Hour) 안내

- 일시: 12월 31일(수), 11:00pm-12:00am
- 장소: St.Vincent's Church, Aranda

* 작년과 같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하느님 사랑과 기도 안에서 고요히 맞이하고자 합니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안내

- 일시: 2026년 1월 1일 (목), 09:30am
- 장소: St.Matthew's Church, Page
- * 로컬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영어미사

* 신앙과 관련된 좋은 다큐멘터리가 있어서 추천해드립니다.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아래 제목으로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KBS 다큐인사이트 - 천사의 시
(김인중 신부의 삶과 예술 세계)”



|

| 봉헌금 & 교무금 | (12월 20일 ~ 12월 26일)

목주기도 모임 안내	
12월 30일은 모임이 없으며, 1월 6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미사 후 뒷정리 |

이번주 (12월 28일)	루카반
다음주 (1월 4일)	마르코반

봉헌금	\$ 210			
교무금	\$ 350			
권묘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정은영	주정자	최원미		

| 기도 지향 |

- * 본다이 비치 총격 사건 희생자 및 유가족들을 위해
- * 본당 아이들 & 청소년들을 위해
- *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 * 故 백종웅 형제님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